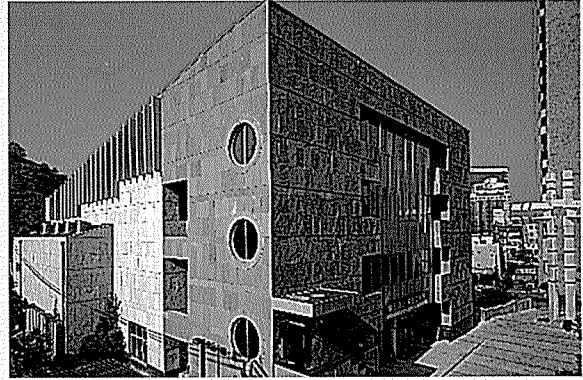


기능미학과 형식미학

Functional Aesthetics and Formal Aesthetics

백문기 / 인.토.건축,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
by Beack Moon-Ki



건축가 최동규의 작품을 찾아간 것은 싱그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계절의 어느날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이곳은 변화한 도시의 한 켠을 두고 있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맞닿는 곳인데, 남산의 한 줄기 끝이라고 여겨진다. 필자가 고층건물을 뒤로하고 찾아갔을 때, 거대한 '십자(+)'가 (여느 건물의 종탑에 올라간 십자가가 아닌) 지면에 꽃혀 있는 분절된 십자가 형태를 보면서 한눈에 교회임을 알 수 있었고, 그 형상이 너무나 설명적이라 쉽게 입구를 찾아냈다. 그 뒷면에 단일 형상으로 보여진 형태는 매우 단순해 보였고, 그 비례는 도시가 갖는 향성과 순응하는 크기였으며, 재료자체의 질감을 따뜻한 인도 사암의 재료로써 두개의 색상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다소 스케일에 대한 저항을 느끼면서도 내부로 조용히 공간을 느끼면서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배공간과 제대부분에서 들어오는 빛을 주시하며 서성거려 보기도 했다. 그곳엔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측에서 요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석구석 모두를 이용하고 있었다. 지상3층과 지하4층, 대지면적 833.5평에 연면적 2,930평 그것도 고도제한 입안지역이라 지상으로 짓고자 하는데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도시의 공공성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Gate로 삼으면서, 그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게 하고 있으며, 동측의 4미터 도로에는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도시 속에 작은 휴게공간과 전면 마당과의 연결을 구 교육관의 접속을 통하여 청소년과 유치부들의 놀이터로서 대지가 갖고 있는 한계를 활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것은 도시에 대지가 갖고 있는 지가를 생각한다면 건축가가 그 한계를 스스로 느끼면서 구석구석 사용하려는 노력은 사용자를 위해서나 공공성을 위해서 건축가가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른바 기능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기능의 해결과 충족을 근거로 두고 있으므로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다.

1층에 들어서면 거의 개방되어진 교회사무실이 모든 사람과의 접근을 쉽게 하고 있으며, 당회장의 접촉과 성도들의 교류 또한 여기서 이루어진다. 예배공간에서도 위, 아래층의 경사진 회중석 사이에 개인 기도실이 위치하며, 지하층에도 분반공부실과 숙소를 두고 있어, 성경공부를 하거나 수련장으로 이용하므로 별도의 공간없이도 장소를 활용할 수가 있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건축가에 의해 기능적으로 풀어지던 작업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는 철저한 형식적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과 형식을 해결한 건축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건축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많은 건축주들이 건축의 철학적인 문제를 기호로서만 이해하려는 사고 속에서, 또 다시 건축가에게 무리한 용도 수용에 대한 해결을 요구함으로써 인해 건축가는 단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지식인들의 상식적 편견에 재차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적 가치인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과 '신앙적 본질'이 어느 정도 가치부여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이라는 말 속에서 그들의 내면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다.

"성전은 그 존귀함이 은과 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심에 있다"고 한다.

성경은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이다."

그곳에 예배공간과 제대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특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밤하늘에 떠도는 붉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춤춤히 박혀있는 네온사인의 십자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아마도 시대를 보고 감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복잡한 사회에 표류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함인가?"

"불확실한 시대에 모든 재앙으로부터 비켜가고자 함인가?"

"아니면, 지나온 시간의 잘못을 반성하여 신앙으로부터 마음을 평정하고 속죄를 하고 구원받고자 함인가?"

“그러면, 신도를 수천명, 아니 수만 명을 넘게 수용하는 교회가 과연 축복의 증거일까?”

“양적 팽창이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좋은 건축은 인간에게 스스로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좋은 교회건축은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행하게 한다.”

잠시나마 종교에 대한 물음을 한 것은 건축가에게 본질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건축가 최동규는 외관(정면)에서 굴뚝질의 속 알맹이와 표피인 관계에서 그것을 형상화하였다. 통합되어진 기능에서는 주공간(예배실)과 부공간(부속실)으로 구분하여 장방형의 덩어리에 부채꼴 모양(아래나 스타일)을 접속시켰다. 그리고 기능을 조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방법에서는, 동일한 재료 상에서 색상을 바꾸어가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예배공간은 옛날 살림에서 사용되어지던 목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수납적 방식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건축주는 처음부터 부채꼴 모양의 예배공간에 주목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지가 갖고 있는 여건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이미 다른 방향이 암시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건축가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형태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쪽 생각으로는 정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건축물에 십자가를 세워서 만든다면 상징적인 기호가 될 거라는 지식적인 방법을 요구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에, 바로 땅위에 세웠을 때도 기호의 역할과 영역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시 속에 놓인 한 조각으로 인식되어지므로 많은 비 신도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더 깊은 기호로서 다가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 교회를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건축가들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지니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기존 교육관 정문을 서로 마주하면서 갖는 기능적 효율은 매우 좋은 듯하다. 그러나 너무나도 짧은 도시적 접근은 예배공간 안에서의 심리적, 과정적 진입부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남측에 제대를 두고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성가대 좌우 제대에 빛을 머물게 한 것은 상당히 설명적이긴 하나 좀더 긴 과정적 공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숙하고자 하는 공간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일 남측 인접대지 경계선 부분에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면 그나마 빛이 주는 효과마저도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남측에 여유있는 마당을 두고 해결한다면 그 빛은 늘 유지되리라 보며, 서측면의 사이 또한 줄여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동측에 있는 4미터 높이의 긴장된 벽면과 마주하는 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본다. 또한 북측 진입이 갖는 어둡고 음산한 진입감도 무시할 수 없다.

작가는 주공간과 부공간을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재료의 색상으로 구별되어지며 때때로 면에 콘트라스트가 부여된다. 필자의 눈에는 그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색상의 단조로움에서의 변화로만 보여졌었다. 그리고 동일한 재료의 색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 그것은 조형적으로 수평적 이반상태이거나, 수직적 이반상태여야 하는데 반해 그 방법은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진다. 작가 또한 아이디어를 실행함에 있어 기대한 것보다 약하게 느껴졌으리라 본다. 부공간(부속실)과 주공간(예배실)의 형태가 갖고 있는 언어를 달리 연출했다면 그 의도는 분명하게 나타났으리라 본다. 그래서 통합된 자체에서 또다른 분리의 성격을 이반시켜 외부 공간화된 사이를 개입시켰더라면 훌륭한 방법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음악에서는 음조 자체가 제시부, 재현부, 반복에서 그 절정에 클라이막스가 있으며, 중국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것을 음악에 비유하자면, 제시부 자체가 기호로서 멈춰 서 있으며, 그것이 재현되어 있으나 그 교회가 가져야 할 클라이막스는 빠져있는 듯하다. 필자는 작가와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층은 하늘과 만나는 또 하나의 유일한 대지인데, 그것을 덮지 말고 하늘이 열린 옥외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동의적인 심경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너무 관습적으로 어느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만일 그랬더라면 남산 산자락을 보며 서울의 하늘이 갠혀진 상태에서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며, 그 공간은 클라이막스 역할로 존재하며, 설사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한 개의 보석은 갖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 작가는 여기서 하늘로 상승하는 안(案)을 만들어 브리핑까지 완료했으나, 그것이 남산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일정 높이제한이 규제되는 곳이라 실현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안 속에는 작은 상징적인 전망대도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건축가 최동규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을 논할 때 걱정이 앞선다. 한 사람의 작품을 논할 때는 그 사람의 생활철학, 그리고 성장과정, 즉 배경을 알아야만 정확한 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상당히 많은 교회작품을 다루었으며, 기술적 해결능력이 뛰어나고, 알바 알토라는 핀란드 건축가의 작품에서 인간적인 작업을 흠모하고 영향을 받아 작업에 그러한 방법이 보여지고 있으며, 꽤 성공한 건축가라고 알고 있다. 굉장히 유머스럽고 남에서 즐거움을 주고 또한 건축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각종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그의 모습은 생활자체에서도 성실함을 느끼게 한다. 지금에 와서 그의 작품(성도교회)을 따로 평가하고 싶지 않으며, 그는 여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진짜 최동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여건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 훌륭한 역작이 건축가 최동규 손에 의해만 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느낌을 만족하며 더 이상 그를 평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Functional Aesthetics and Formal Aesthetics

My visit to architect Choi Dong-Kyu's recent work at the hill of Nam-San, a junction between commercial and housing areas, was in the late afternoon of a bright spring day. Just passing a high-rise building, a fragmented cross, unlike other usual crosses seen in other churches, came to sight, unmistakably indicating the purpose of the architecture behind it. The building itself had a rather simple form, with a proportion in conformation with that of the rest of the city, and with the colors of two warm Indian sandstones.

The overall scale somehow provoked me, but I proceeded inside to look into the interior spaces, which was of high density, perhaps the result of excessive programmatic demand from the church. Considering the value of this inner city land, the effort to condense various programmes to a limited site is surely a basic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architect. This functional approach is applied in the interior as seeking formal solutions for various functional requirements, and thus enables convenient use.

Entering the first floor, one is faced with the open church office, where the meeting between the priest and the adherents occur. The chapel has individual praying spaces along with lecture spaces and dormitory in the basement. These open spaces are adjustable to various programmes without physical alternations.

The architect striv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owner, but disagreements will occur, and it is another task for the architect to come up with formal solutions to these disparities. What could be the visualization of a successive architecture in formal and functional aspects? In answering this question, I realized that it was not the sole concern of the architect. Architects themselves interpret the philosophical issues of architecture as semiological problems, and added to this are the excessive demands of the owners, which together forms, among intellectuals, a stereotype of architects as a problem solver to certain demands. In this view, the questions on the essence of religion and man, a spiritual value that has sustained mankind, comes about. The ultimate subject can be: under the notion of convenience, aren't we neglecting the inner values within us? Some questions on religion per se could help in providing an answer. In a personal opinion, I believe the essence of an architect, as of any other profession, is to follow God's lessons.

Choi has realized this materially in the relations of the envelope and the content. The unified programme consists of main spaces for ceremonies and sub spaces for additional activities, together contained in combined form of a square and an arena. To visualize the function, the method of alternating colors in the same materials was applied. The chapel area was inspired by the wooden vessels from the old ages. The owner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arena shape of the chapel, but conditions of the site disabled a

complete realization, and variations were made. Each time the architect faced these problems, he sought new ideas and forms, but simultaneously his thought could only be oriented towards a certain way.

The architect could have placed the cross on the roof, raising it above the high-rise buildings, but he instead chose to place it on the ground. It would nevertheless perform its symbolic function, and in addition, as a piece of sculpture, give a warm welcome to the adherents.

The church, however, leaves a few things to be desired. The style of each architect is apparently characteristic, so I would approach its shortcomings from an objective stance.

For instance, facing the existing education center seems like a functional solution, but the resulting diminution of entrance length ultimately reduces the chapel's effect of spiritual approach. And by placing the main altar in the south and inviting natural light in order to illuminate the choir loft seems ideal for a holy environment but lacks a sense of silence found in linear proceeding spaces. And in the occasion of a building's addition in the southern neighboring site, the effect induced by natural light will no longer be available. The northern entrance, with its dark and dim passages, could be pointed out as another shortcoming.

The architect explains the main and sub spaces in terms of master and servant. The separation of these two are indicated by the use of materials with diverse colors, which, before comprehending the architect's intention, only seemed like a method to break the monotonous tone. But this use of color as a tool of classification seems rather passive, a easy way out. I suppose the architect himself also felt a lack of strength in this method. It would have been more effective if the two were classified by formal language.

A work of music, in a sonata form, consists of presentation, representation, repetition, climax and ends in a denouement. Comparing this to the church, one can realize the curious absence of the climax. The architect has pointed out the problem himself: he regrets covering the ceiling of the highest floor, which is another land where we can meet the sky. An open space at the top of the church would present a grand vista of NamSan and the endless sky. At a certain point, it must have been too difficult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 of thinking. Even if he had, the conservation law of NamSan, limiting the height of buildings, would have prohibited the actual execution.

I do not know much about Choi, and from this fact it was quite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his architecture. To do so, I believe, one must have the knowledge of his point-of-view on the world, his philosophy, and his own history - in other words, his background. The only thing I know about him is that he has done a number of religious architecture, that he admires the human warmth in the works of Alvar Aalto, and that he is quite a successful architect. In this view, I do not wish to expand my analysis any further. But this work alone ensures me that his future projects are worth looking forward to.